

“다문화시대에 사회통합 위한 비전 제시”

글 편집부 / 사진 송은지 핀스튜디오



아산재단 창립 39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마지막 순서인 종합토론에 참여한 제1~3주제 발표자와 토론자들. 왼쪽부터 함재봉 아산정책연구원 원장(좌장), 민병곤 서울대 국어교육과 교수, 원진숙 서울교대 국어교육과 교수, 권순희 이화여대 국어교육과 교수, 박성춘 서울대 윤리교육과 교수, 박찬석 공주교대 초등교육과 교수, 이용권 문화일보 사회부 기자, 이진석 부산대 일반사회교육과 교수, 차윤경 한양대 교육학과 교수, 김현철 이화여대 법학과 교수.

아산재단은 6월 23일 오후 2시 웨스틴조선 서울 오키드룸에서 학계와 관련 전문가 130여 명을 초청해 ‘다문화 시대와 한국의 사회통합’을 주제로 재단 창립 39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우리나라 다문화 교육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다문화 시대에 공존과 조화를 이룰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다.

아산재단은 설립 직후인 1970년대 말부터 우리 사회의 발전과 현안 해결을 모색하기 위해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학술연구사업을 진행해왔다. 1979년부터 매년 개최한 심포지엄은 처음 10년

은 복지사회, 다음 10년은 사회윤리, 최근 10년은 삶의 질 문제에 초점을 맞추면서 지난 30여 년간 우리 사회의 현안을 조망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왔다.

아산재단 학술연구 자문위원회는 2015년 공모 주제를 이주민의 증가에 따른 다문화 시대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다문화 시대와 한국의 사회통합’으로 결정했다. 공모 결과 윤여탁(서울대 국어교육과), 민병곤(서울대 국어교육과), 박성춘(서울대 윤리교육과), 박성혁(서울대 사회교육과), 이진석(부산대 일반사회교육과)



인사말을 하는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과 축사를 맡은 문대양 미국 하와이주 전 대법원장(왼쪽부터). 문대양 전 대법원장은 1900년대 초 사탕수수 노동자로 하와이에 정착한 초기 이주한인의 3세로, 이번 심포지엄 축사를 통해 이민자로서 경험한 미국 다문화 사회의 소회를 밝혔다.

과) 교수 등이 연구팀으로 구성됐다. 연구팀은 지난해 6월부터 연구를 진행해왔고, 이날 연구결과를 발표하며 사회통합 방안을 제시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다문화여성고 외국인근로자, 외국국적 동포와 새터민 등이 늘면서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2016년 우리나라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197만 명으로 조사됐다. 대전광역시 인구 150만 명보다 40여만 명이 많은 숫자다. 국민 100명 중 3명꼴로 외국인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여기에 82만여 명의 다문화가정이 존재한다. 우리나라의 국제결혼은 전체 결혼의 10분의 1에 이르고, 농촌지역 결혼의 절반은 국제결혼인 실정이다. 신생아 20명 가운데 1명은 다문화가정 출신이고, 다문화가정의 자녀수는 21만 명이라고 한다. 4년 후인 2020년이면 청소년 인구의 20%가 다문화가정 출신일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불가피한 다문화 국가로의 변화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이제 우리나라도 다문화국가가 되었다. 우리가 세계로 뻗어나갈수록 세계가 우리 속으로 들어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선진국들의 경험에서 보듯 다문화국가 건설은 쉬운 일이 아니다. 오늘의 심포지엄은 우리가 생각해야 할 점들을 짚어보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말한 뒤 “아버님은 복지라는 말 자체가 생소하던 1977년에 가난과 질병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아산재단을 설립하셨다. ‘어려운 이들이 상대적 박탈감과 위화감, 그리고 차별의식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돕는 것이 어려운 이들에 대한 인간의 예의’라는 아버님의 말씀대로, 피부색이 다르고 한국말이 서툴고 종교와 문화가 다르다고 차별받는 분들이 차별의식을 느끼지 않도록 ‘인간의 예’를 다하는 것이 다문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자

세”라고 강조했다.

축사는 로널드 문(75 · Ronald T.Y. Moon) 미국 하와이주 전 대법원장이 맡았다. 하와이 이민 3세로 ‘문대양’이라는 우리 이름을 가진 문 전 대법원장은 1993년 한국계 최초로 하와이주 대법원장에 선임돼 17년 동안 하와이 사법부를 이끌었다. 축사를 하기 위해 하와이에서 서울에 온 그는 한국이 눈부신 성장을 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역할을 한 정주영 아산재단 설립자와 ‘빈곤과 질병 없는 세상 만들기’라는 설립자의 비전을 실현하고 있는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에게 경의를 표한 뒤 “미국에서 가장 다문화적인 하와이 출신이고, 인구의 95% 이상이 백인인 아이오와 주의 여러 학교에 다녔서 다문화주의가 익숙하다”면서 “현재 세계 각국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다문화주의인 만큼 시기적절한 주제를 다루는 이번 심포지엄에 관심이 많다”고 말했다.

심포지엄은 “우리가 이뤄야 하는 이상적인 다문화 사회는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며 조화를 이루는 사회이고, 이를 위해 다양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밝힌 윤여탁 교수의 기조연설로 시작됐다. 이어서 제1~3주제인 ‘다문화 시대 한국어 의사소통과 문화교육’, ‘다문화 시대의 통일교육’, ‘다문화 시대 사회통합을 위한 법제도와 시민교육’에 관한 주제발표와 다문화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로 진행됐다. 마지막 순서인 종합토론회에는 함께봉 아산정책연구원 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1~3주제 발표자 3명과 토론자 6명이 모두 참여했다.

토론회에 참여한 각계 전문가들은 “200만 명의 다문화 인구가 살고 있는 한국의 다문화 정책은 지금까지 상당히 성공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앞으로 ‘다문화주의’의 개념과 방향을 더욱 명확히 설정하고 이를 실현할 구체적인 교육, 법안 및 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